정부합동 보도참고자료

2015년 6월 5일(금) 오전 11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산업통상자원부 안세진 FTA협상총괄과장(044-203-5750), 정창현 총괄기획과장(044-203-4120), 김재준 동아시아FTA협상담당관 과장(02-734-1864), 김완기 FTA정책기획과장(044-203-5740)
농림축산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과장(044-201-1711), 안용덕 축산정책과장(044-201-2311), 김수일 동아시아FTA과장(044-201-2061)
해양수산부 전재우 수산정책과장(044-200-5420), 윤상린 통상무역협력과장(044-200-5380)

정부, 한·중국, 한·베트남, 한·뉴질랜드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

- 3개 FTA로 10년간 소비자후생 약 150억 불 증가 및 제조업 수출증대 기대 -
- 농수산업 등 피해 예상 분야에 약 1.7조원 규모의 보완대책도 마련 -

【3개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】

□ 정부는 **한·중국, 한·베트남, 한·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(FTA)**의 **비준동의안**을 6월 4일 국회에 제출하였다.

○ 이날 제출된 3개 FTA 비준동의안은 정식서명* 후 **통상절차법 제13조**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,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등과 함께 제출되었다.

* 정식서명 : 한·중 FTA '15.6.1일, 한·베 FTA '15.5.5일, 한·뉴 FTA '15.3.23일

□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FTA에 대한 **영향평가**를 실시하였고, 이해관계자, 관련 단체,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*을 거쳐 **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**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.

* 농업인등 지원위원회(5.19일), 어업인등 지원위원회,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(5.20일) 심의 완료,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(5.29일)
* 한·중 FTA 실질타결 후 농림·수산·제조업 등 분야별로 총 120여회 이상 의견 수렴

□ 앞으로 정부는 FTA 효과가 빠른 시일 안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**3개 FTA의 연내 발효***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.

* 3개 FTA 관세인하 방식(발효일에 1차 관세인하 → 이후 년도 1.1일 2차 관세인하)에 따라 연내 발효될 경우 '16.1.1일 2차 관세인하 효과

【영향평가 결과】

□ **(개요)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***이 참여하여 FTA 발효에 따른 실질 GDP, 고용, 세수효과 등 거시효과와 수출, 생산 등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였다.

*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산업연구원,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한국노동연구원, 한국조세재정연구원

<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>

구분	실질GDP (발효 후 10년)	소비자후생 (발효 후 10년)	고용 (발효 후 10년)	세수 (발효 후 10년 평균)
한·중 FTA	0.96%	146억불	53.8천명	0.27조원
한·베 FTA	0.01%	1.46억불	671명	△267.4억원
한·뉴 FTA	0.03%	2.96억불	952명	△215.9억원

□ **(한·중국 FTA)**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.96% 추가성장, 소비자후생*은 146억 불 증가, 무역수지는 20년 평균 4.33억 불 개선될 전망이다.

* 소비자후생은 FTA가 발효되기 전 가계가 구입했던 상품묶음을, FTA 발효 후 동일하게 구매하고 남는 금액으로 측정

○ 정유제품, 석유화학제품 등 중심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은 발효 후 20년 평균 1.39조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,

○ 밭작물과 임산물, 어류, 갑각류 등 수입 증가로 농림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20년 평균 각각 77억 원과 104억 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.

□ **(한·베트남 FTA)**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.01% 추가성장, 소비자후생은 1.46억 불 증가,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1.1억 불 개선될 전망이다.

○ 화학, 섬유, 전기전자, 철강 등 주요산업에 걸쳐 제조업 생산은 발효 후 15년 평균 0.46조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,

○ 벌꿀류와 갑각류, 패류 등 수입 증가로 농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15년 평균 각각 47억 원과 54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.

□ **(한·뉴질랜드 FTA)**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.03% 추가성장, 소비자후생은 2.96억 불 증가,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0.62억 불 개선될 전망이다.

○ 철강, 일반기계, 전기전자 등 중심으로 발효 후 15년 평균 제조업 생산은 0.27조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,

○ 낙농품, 육류 등의 수입 증가로 발효 후 15년 평균 농업과 수산업은 각각 237억 원과 21억 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.

【국내 보완대책의 주요내용】

정부는 한·중, 한·베, 한·뉴질랜드 FTA로 인한 **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**를 위하여 **「한·중/한·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」**과 **「한·뉴질랜드 FTA 국내대책」**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.

1 한·중, 한·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

□ 금번 대책은 **취약 산업** 및 **피해중소기업**의 **경쟁력 제고와 함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** 및 **FTA 활용**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을 위하여 마련되었다.

○ **농수산 분야는** 밭농업, 임업, 양봉업, 연안어업 등 **취약부문**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였고, 중장기적으로 첨단화·융복합 및 수출확대, 안전망 구축 등 **미래성장 산업화** 방향을 제시하였다.

구분	생산감소('16~'35년)	투융자규모('16~'25년)
농림업	2,245억원	2,259억원(한중 1,595, 한베 664)
수산업	2,890억원	3,188*억원

* 수산업은 한·뉴 FTA 생산 감소액(311억원)까지 감안하여 대책 마련

○ **제조업 분야**는 **피해 중소기업** 및 **취약부문**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, 한중 FTA로 확대된 **중국 내수시장의 진출 기회**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**FTA 활용촉진** 및 **수출 촉진 지원**에 주안점을 두었다.

구분	내용	투융자규모 ('16~'25년)
중소기업 지원	사업전환(2,600억원), 긴급경영안정(500억원)	3,100억원
취약부문 지원	경쟁력 강화 융자지원	3,000억원
수출촉진, 활용지원	해외유통망 진출, 차이나데스크 운영 등	1,935억원
제조업 합계		**8,035억원**

□ **'한·중, 한·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'**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(**밭농업 경쟁력 제고: 1,165억원**) '25년까지 주요 **20개 밭작물 주산지**에 **밭공동경영체 100개소**를 **육성**하고 **밭기계화율**을 **85%***까지 **제고**하며, **농가소득안정**을 위해 **수입보장보험**을 **도입**한다.

* ('14) 56.3% → ('17) 65% → ('25) 85%

○ (**임업·양봉업 경쟁력 제고: 974억원**) 주산지별 **산림작물생산단지**를 **확충***하며, **천연꿀**(꽃꿀)과 **사양꿀**(설탕)의 **구분****을 명확히 하고 **꿀 품질 관리를 강화**하여 **소비자 신뢰를 제고한다.**

* 작물생산단지: ('14) 181개소 → ('25) 320
** (현행) 벌집꿀, 벌꿀 → (개정) 벌집꿀, 벌꿀, (가칭) 사양꿀

○ (**어업인 소득·경영 개선: 674억원**) **맨손·나잠 어업*** 및 **종묘생산 어가 정책자금 금리**를 **인하**(3→2%)하고, 긴급경영안정자금**을 운영하며, 수입보장보험 도입, 어업재해보험 확대 등 **정책보험을 내실화**한다.

* 신고건수('13): 104,202 / 1인당 융자한도 300만원(맨손), 700만원(나잠)
** 적조, 가격 급락 등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단기 운영자금(이차보전, 1.8%)

○ (**어선 및 양식어업 지원: 1,573억원**) **연안어업**의 품목별 **생산자단체 육성**, 국내외 **불법조업 단속역량 강화** 등 어선어업 분야를 지원하고, **친환경 양식 직불제** 도입, **내수면**(유통판매센터)·**소금**(생산 자동화 설비) **등 취약 분야 특화 지원**을 통해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.

○ (**농수산물 수출기반 강화: 514억원**) 시장개척을 위한 정보조사와 전략적 마케팅을 지원하고, **주요 해외 소비지**에 **신선 수산물 수출 촉진**을 위한 **냉장·냉동 공동 물류센터**를 **확충**한다.

○ (**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체질개선: 6,100억원**) 피해기업 **경영안정** 및 **사업전환** 지원을 확대하고(3,100억원), **취약부문 경쟁력 특별지원**을 위한 **융자 프로그램**을 신설한다(3,000억원).

○ (**공통애로기술 해소지원: 기존예산* 활용**)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을 활용하여 **중국의 기술규제에 대응**할 수 있는 **공통애로 기술 개발과제**를 **발굴**하여 지원한다.

*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내 무역환경변화 대응사업('15년 48.5억) 등

○ (**현지 거점 확보 및 유통망 확대: 1,470억원**) 중국진출기업을 대상으로 **경영전략 수립**과 **법률·교육 서비스를 일괄 지원**하고, 중국내 **인증 획득**에 필요한 **기술 컨설팅**과 **통합솔루션 제공**을 확대한다.

○ (**한중 TBT* 종합지원: 100억원**) 국가기술표준원에 한·중 **TBT 종합지원센터**를 설치하고 **TBT 신문고**를 운영하여, **우리기업의 비관세 장벽 애로해소를 전담지원**하고 **기업의 제도개선 수요**를 적극 발굴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. *Technical Barriers to Trade: 무역기술장벽

○ (**수입안전체계 구축: 310억원**) 원산지 변조 위험이 높은 건고추, 대두 등 고위험 농산물 품목은 물론, 홍합, 가오리 등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.

2 한·뉴질랜드 FTA 국내 보완대책

□ 금번 대책은 기수립된 「한·영연방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」('14.9월)을 기본으로 하되, 한·뉴 FTA 타결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였다.

○ 주요 피해 예상 분야인 한우·낙농 중심으로 영연방 FTA 대책기간인 **'16~'24년**(9년)간 **3,523억원**을 **추가 지원**한다.

생산감소('16~'30년)	투융자규모('16~'24년)
3,558억원	3,523억원

□ '**한·뉴질랜드 FTA 국내 보완대책**'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(**축산업 생산: 2,886억원**) **한우 개량군을 구축**하는 경영체를 지원하고, **국산원유의 가공원료유 지원**을 **확대***하며, 국산원유를 이용하는 유업체 등의 **경쟁력 강화**를 **지원**한다.

* 생산비와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국산 원유의 가공원료유 공급을 뉴질랜드 탈·전지분유 TRQ수입물량 수준(연간 1,700톤) 만큼 추가 공급

○ (**축산물 유통·소비: 490억원**) **축산자조금 지원 확대**를 통해 국산 **유제품 인지도 제고**와 **한우·한돈의 수급조절기능 강화**를 추진하고, 무슬림 시장 개척을 위한 **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**을 지원한다.

○ (**협력 추진: 147억원**) **농어업인 자녀에게 뉴질랜드 연수기회**를 **제공**(연간 최대 150명)하며,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분야 학생들에게 뉴질랜드 선진 농어업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**훈련비자***를 운영(연간 최대 50명)한다.

* 한-뉴 FTA 체결 계기에 인력이동 확대를 위해 ①워킹홀리데이 확대(1,800명→3천명), ②일시고용입국 도입(총200명), ③농축수산업 훈련비자 도입에 합의

○ (**세제 및 제도개선**) 영농자녀에 대한 **증여세 감면**(5년간 1억원 한도) **대상**에 **축산용지도 포함**하며, **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축산 기자재를 확대**한다.

※ 참고 첨부

[첨부1] **3개 FTA 주요 경과**
[첨부2] **영향평가 주요 내용**
[첨부3] **한·중/한·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**
[첨부4] **한·뉴질랜드 FTA 국내 보완대책**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안세진 FTA협상총괄과장(☎044-203-5750), 정창현 총괄기획과장(☎044-203-4120) 농림축산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과장(☎044-201-1711), 해양수산부 전재우 수산정책과장(☎044-200-542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1 3개 FTA 주요 경과

□ '14년말 한·중국/한·뉴질랜드 FTA(11월), 한·베트남 FTA(12월) 등 3개 FTA 타결 후 후속절차* 진행

* 협상 타결 → 법률검토 → 가서명 → 한글본 번역 → 국무회의 심의 → 정식서명 → 보완대책 마련 → 비준동의안 국회제출

○ **(한·중)** '15.2.25일 가서명, '15.6.1일 정식서명 완료
○ **(한·베)** '15.3.28일 가서명, '15.5.5일 정식서명 완료
○ **(한·뉴)** '14.12.22일 가서명, '15.3.23일 정식서명 완료

□ 통상절차법에 따른 FTA 영향평가 완료 및 동 결과에 기초하여 피해 예상 분야에 대한 국내보완대책 수립

○ **(영향평가)** '14.12~'15.5월, 관계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3개 FTA 각 영향평가 분석 실시

○ **(보완대책)** 한·중/한·베 FTA 관련,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**'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'** 마련

- 한·뉴 FTA의 경우 「한·영연방 FTA 농업 분야 국내대책('14.9월)」에 추가적으로 **'한·뉴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'** 마련

* 농업인등 지원위원회(5.19일), 어업인등 지원위원회,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(5.20일) 심의,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(5.29일)

< FTA별 협상 추진 경과 >

한·중 FTA	• '12.5월~'14.11월간 14차례 공식협상 * (1단계 협상) '13.9월(제7차 협상) 타결, 상품 양허 관련 품목수 기준 90%, 수입액 기준 85% 자유화율 기준 설정 (2단계 협상) '13.11월부터 협정문 및 양허협상을 개시하여 7차례 협상 진행 • '14.11.10일 한-중 정상회담 계기 실질타결 선언(베이징) • '15.2.25일 외교경로를 통해 가서명된 협정문 교환 • '15.6.1일 한-중 FTA 서명(서울)
한·베 FTA	• '12.8월~'14.12월 간 9차례 공식협상 • '14.12.10일 한-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협상 실질타결 선언(부산) • '15.3.28일 수석대표간 영문협정문 가서명(서울) • '15.5.5일 한-베 FTA 서명(하노이)
한·뉴 FTA	• '09.6월~'14.10월 간 9차례 공식협상 • '14.11.15일 G-20 계기 양국 정상 간 한-뉴 FTA 타결 선언(브리즈번) • '14.12.22일 수석대표간 영문협정문 가서명(웰링턴) • '15.3.23일 뉴질랜드 John Key 총리 방한 계기 한-뉴 FTA 서명(서울)

첨부2 영향평가 주요 내용

□ **(연구개요)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산업연구원,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한국노동연구원,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 참여

○ FTA 발효에 따른 **거시 경제적 효과(실질 GDP, 고용, 세수효과) 및 산업별 영향(수출입, 생산효과)** 분석

□ **(분석 방법)** 한·미, 한·EU FTA의 영향평가 분석에 사용되었던 연산가능 일반균형(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, CGE) 모형을 이용하여 일관성 유지, 연구기관 간 상호 검증을 통해 정합성 제고

□ **주요 결과**

구 분			한·중 FTA	한·베 FTA	한·뉴 FTA
거시 지표	실질 GDP * 10년 누적		0.96%	0.01%	0.03%
	소비자 후생 * 10년 누적		146.26억불	1.46억불	2.96억불
	고용 * 10년 누적	전체	53,805명	671명	952명
		제조업	2,897명	112명	43명
		농수산업	△160명	△33명	△55명
		서비스업	51,067명	592명	964명
	세수 증감 * 10년 평균		0.27조원 증:1.69조원 감:1.42조원	△267.4억원 증:175.7억원 감:443.1억원	△215.9억원 증:562.4억원 감:778.3억원
수출입 * 15년 평균 (한중 20년평균)	전 체		4.33억불	1.11억불	0.62억불
		제조업	4.5억불 수출:46.7억불 수입:42.2억불	1.18억불 수출:1.35억불 수입:0.17억불	0.73억불 수출:0.78억불 수입:0.05억불
		농림업	△0.075억불	△0.011억불	△0.097억불
		수산업	△0.093억불	△0.06억불	△0.017억불
생산액 * 15년 평균 (한중 20년평균)	제조업		1.39조원	0.46조원	0.27조원
	농림업		△77억원	△47억원	△237억원
	수산업		△104억원	△54억원	△21억원

1 **(한·중 FTA)**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.96%, 고용은 5.4만 명 증가, 전체 무역수지는 20년 평균 4.33억 불 개선 예상

(제조업)

○ **(수출입)** 정유제품, 석유화학제품 등 기타제조업을 중심으로 연평균 **4.5억불 교역수지 개선** 예상

○ **(생산)** 발효후 20년간 **연평균 1.39조원 생산증가**가 예상되나, 단기적으로는 0.7조원(5년간), 0.47조원(10년간) 감소 예상

(농림업)

○ **(수출입)** 주요 농산물을 양허제외하였으나, 일부 재배업 품목과 가공농산물의 수입증가로 **연평균 0.075억불 교역수지 악화** 예상

○ **(생산)** 발효후 20년간, 채소류, 인삼·버섯 등 특약용 및 임산물을 중심으로 **연평균 77억원 생산감소**가 예상

(수산업)

○ **(수출입)** 어류·갑각류 등 수입증가로 **0.093억불 교역수지 악화** 예상

○ **(생산)** 발효후 20년간 바지락·홍합 등 패류, 새우 등 갑각류 등을 중심으로 **연평균 103.97억원 생산감소** 예상

2 **(한·베 FTA)**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.01%, 고용은 671명 증가, 전체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1.1억 불 개선 예상

(제조업)

○ **(수출입)** 섬유, 자동차, 화학, 전기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하여 발효 후 15년 평균 **무역수지 약 1.18억불 개선 전망**

○ **(생산)** 화학, 섬유, 전기전자, 철강 등 주요산업에 걸쳐 생산이 증가하여 발효 후 15년 평균 **약 4,550억 원 생산 증가 전망**

(농림업)

○ **(수출입)** 한·아세안 FTA 대비 추가개방 폭이 크지 않으나, 일부 축산업 품목의 수입증가로 발효 후 15년 평균 **0.011억불 무역수지 악화 예상**

○ **(생산)** 발효 후 15년 평균, 벌꿀 등을 중심으로 **47억원 생산감소 예상**

(수산업)

○ **(수출입)** 갑각류·패류 등 수입증가로 발효 후 15년 평균 **0.06억불 무역수지 악화 예상**

○ **(생산)** 발효 후 15년 평균, 새우 등 갑각류를 중심으로 **54억원 생산감소 예상**

3 **(한·뉴 FTA)**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.03%, 고용은 952명 증가, 전체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0.62억 불 개선 예상

(제조업)

○ **(수출입)** 우리 공산품의 대뉴질랜드 수출이 증대, 수입 확대 효과는 미미**(발효후 15년 평균 0.73억불 흑자)**

○ **(생산)** 수출 증대에 따라, 철강 및 일반기계, 전기전자, 기타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 **(발효후 15년 평균 0.27조원 생산증가)**

(농림업)

○ **(수출입)** 뉴질랜드 농산물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, 수출 확대 효과는 미미(발효후 15년 평균 970만불 적자)

○ **(생산)** 뉴질랜드산 낙농품, 육류 등의 수입 증가(대체효과 포함)로, 발효 이후 15년차까지 **연평균 237억원 생산감소** 예상(**15년 누적 3,558억원**)

(수산업)

○ **(수출입)** 발효 후 패류, 어류 등을 중심으로 **연평균 1.71만불 수입증가**, 수출은 다랑어가공품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 예상

○ **(생산)** 일부 패류 등의 생산감소가 예상되나, **수산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**(발효후 15년 평균 21억원(누적 311억원) 생산감소)